



제 404 호 2015년 9월 23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cityansan](http://blog.naver.com/cityansan)

[t twitter.com/ansancityhall](https://twitter.com/ansancityhall)

[f facebook.com/ansancity3](https://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https://story.kakao.com/ch/ansancity)

## 02면 특집 / 추석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안산 시민의 바람과 덕담

## 04면 생태·관광

숲길과 해안, 갯벌을 즐길 수 있는 곳  
대부 해솔길 2코스

## 07면 문화·예술

안산시민 한데 모여 행복한 추억 만들기  
‘행복드림 체육대회’

## 10면 학교·도서관

반갑다! 모바일세상!  
경기모바일과학교등학교



풍요의 계절, 가을이 활짝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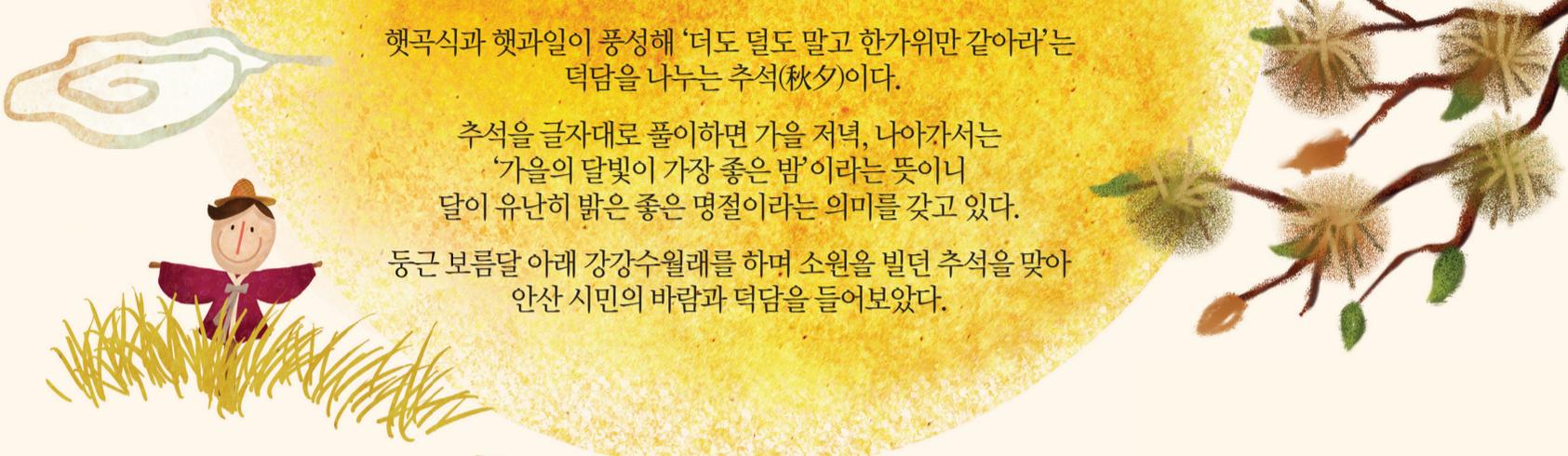
벌어진 밤송이 안에서 일함은 가을과 함께 익어간다.

#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햇곡식과 햇과일이 풍성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덕담을 나누는 추석(秋夕)이다.

추석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니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동근 보름달 아래 강강수월래를 하며 소원을 빌던 추석을 맞아 안산 시민의 바람과 덕담을 들어보았다.



평생학습관 문영희 관장

마음 설레는 추석입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화창한 가을, 큰 희망 안겨주는 휘영청 밝은 동근달 보며 소원 성취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IBK미소금융재단 김노수 안산지부장

우리 지역의 경기가 어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여 서민금융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과 저희 IBK미소금융의 고객들께 풍성한 결실과 수확이 있기를 바라며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독서지도사 신은향 (46세)

나이와 성별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광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함께하는 이야기 광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에게 사람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달빛처럼 스며들어 울림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군포고 교사 최종택 (54세)

추석에는 이름 없는 풀꽃이 되고 싶다. 바쁘게 살 때 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보면 사랑스러운 그런 꽃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양지2 정선민 학생 (18세)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건사고 없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호초4 김찬양 학생 (11세)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를 맞았는데, 싸웠던 아이들과 화해를 못했어요. 추석을 맞아 친구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누림청소년복지센터 이경순 진로상담사 (40세)

올 한가위는 너른 들판에 피는 코스모스처럼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가족 모여앉아 웃을 수 있고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기댈 곳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비빌 언덕과 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문화세상 고리 다문화강사 버지니아 (4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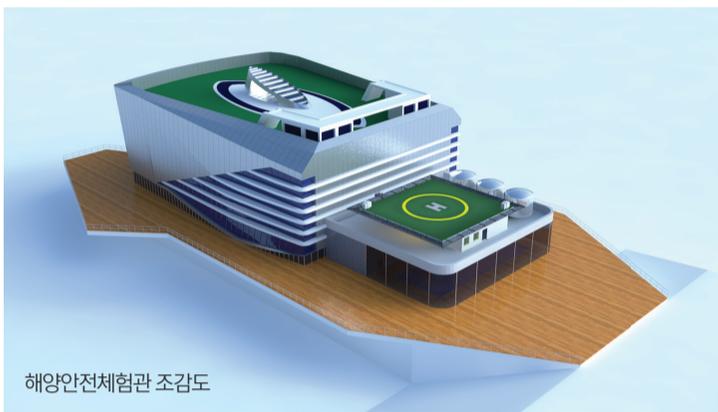
한국에서 콩고의 문화를 알리는 저의 일이 따뜻한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 일을 통해 저와 제 아들이 한국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한국에서 만난 가족,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 해양안전체험관 안산 방아머리 유치 확정

대부북동 1984번지 3층 규모(9,550㎡),  
국비 300억 원 지원



해양안전체험관 조감도

해양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장이 될 '해양 안전체험관'이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공원에 건립된다.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해양안전체험관은 다른 후보지보다 상징성, 접근성, 연계성 등의 요건에서 안산이 최적지로 판단되어 선정됐다.

안산시는 해양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하여 대장지 공원 조성계획(변경), 부지제공을 위한 시의회 동의, 지방비 부담(100억, 道) 등 사전절차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2014년부터 준비해 왔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안전체험관 입지선정을 위한 심의자료 제출 요청시에도 경기도와 안산시의 사전 역할을 분담으로 발 빠르게 심의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양안전체험관은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방아머리공원 일원 7만468㎡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55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해양안전체험관 사업추진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비 13억 원으로 경기도에서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해양안전 분야 전문성이 풍부한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제시하는 기본방향에 따라 해양훈련·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 해양안전 콤플렉스 개념으로 2017년 완공할 예정이다.

해양안전체험관은 국민의 안전한 바다이용을 위한 기초 해양안전 수칙과 비상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체험시설로 건립하여 육상 재난안전 교육시설과 해양특화체험관 조성으로 연간 153천명(1일 약 500명)에게 선박 재난, 바다안전, 해양배움, 바다생존 등 다양한 해양특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랜드마크 시설이 될 것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 7월 국가지원 마리나 개발사업에 방아머리 마리나항이 선정된 이후 해양안전체험관이 확정됨에 따라서 안전해양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안전체험관건립부지(항공사진)

## 안산시 대부도 그랑꼬또와인 '2015 아시아 와인트로피' 은상 수상



대부 그랑꼬또와인이 아시아 최대규모 와인평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품와인으로 우뚝 섰다.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아시아 와인트로피'에서 안산시 그린영농조합(대표 : 김지원)의 그랑꼬또 와인이 은상(M5610, 아이스와인)을 수상했다.

세계 유명와인 20개국 약 3,600종이 출품되었고, 이 대회에서 국내산 와인은 안산대부도의 그랑꼬또와인과 영동와인 등 3개 제품만 입상했다.

또한 그랑꼬또 와인은 2014년 은상(M56)입상에 이어 이 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한 와인은 메달스티커를 부착해 유통될 예정이다.

• 문의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대부영농상담소 ☎ 031-481-2599

## 안산시, 서울반도체(주)와 투자·고용 협약 체결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 만들기에 함께 협력하기로

안산시와 서울반도체(주)(대표이사 이정훈)는 9월 1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시설 투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고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안산시는 기업친화적 행정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기업시책 발굴을, 서울반도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산시민을 적극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시설 투자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설 투자 및 매출 증대로 세수 증가 등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반도체는 LED생산 기업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1일 안산으로 본사 이전을 확정지은 데 이어 이번 투자·고용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지역과의 상생 발전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훈 서울반도체(주) 대표이사는 "시에서 그동안 제1공장과 제2공장의 연결 도로 설치와 관련된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 주신 데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LED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안산 공장에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세계 최고의 특허와 기술경쟁력을 가진 LED기업으로 성장하여 안산시와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는 서울반도체(주)가 실시하는 투자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행정·세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시에서도 기업친화적 행정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기업시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기업지원과 ☎ 031-481-2624



# 숲길과 해안, 갯벌을 즐길 수 있는 곳 대부 해솔길 2코스로 오세요!

대부해솔길 2코스 (총 5.1km) 24시 횃집(대부북동 산83-20번지)-바닷가횃집-뜨리바다펜션-바구리방조제-플라야펜션-새방죽방조제-어심늪시터



가을은 언제부터일까? 혹자는 사람들이 긴 팔 입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하고 혹자는 아침에 일어나 재치기를 할 때부터라고 한다. 천문학적으로는 9월 23일 추분을 가을의 시작이라 하고, 기상청에서는 9일간 일평균 기온의 평균값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은 첫날을 가을의 시작이라고 정의한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도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사람들은 각자

의 방식으로 가을과 대면하고 있다. 가을을 느끼며 조용히 사색하고 싶다면 대부 해솔길2코스를 추천한다. 24시 횃집(대부북동 산 83-20번지)에서 시작하는 해솔길 2코스는 작은 숲길과 해안가, 갯벌을 두루 품고 있다. 평일에는 바람소리와 발자국 소리마저 자연의 일부인 듯 여겨질 만큼 인적이 드문 해솔길 2코스는 가벼운 걸음으로 흠길을 걸으며 산책하기에 금상첨화다.

대부 해솔길임을 알리는 리본을 따라 걸음을 옮기다보면 작은 쉼터가 나온다. 그리 힘든 코스는 아니지만 쉼터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주변의 풍경과 눈을 맞춰 본다. 반갑다. 무심한 듯 피어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를 보며 이태주의 '풀꽃'을 읊어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 그동안 무엇 때문에 그리 바빴는지, 그래

서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놓친 것은 없는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정적을 깨는 새의 날갯짓에 놀라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폭신한 흠길에 취해있을 즈음 시야가 확 트인다. 넓은 바다가 시선을 붙잡는다. 저 멀리 선재대교가 보이고 맞은편으로는 아일랜드 CC가 보인다. 시원하게 부는 바람은 몸과 마음의 상념을 털어내기에 충분하다. 해변을 걷다보니 펜션 단지가 눈에 띈다. 서울 근교에서 바다를 즐기기에 이만한 곳이 없기에 여름 성수기에는 빈방을 찾기 힘들다 한다. 펜션 단지를 지나 걷다보면 해풍을 머금고 단내를 풍기는 포도밭을 만날 수 있다. 달디 단 포도에는 뜨거운 햇살과 서해안의 바닷바람, 그리고 농부의 땀방울이 매달려있다. 포도가 저절로 단맛을 품은 건 아니었나보다. 천천히 걷다보니 해솔길 2코스의 종점이자 3코스의 시작점인 어심늪시터가 눈앞이다.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현실세계로 들어가는 신호탄처럼 여겨진다.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놓칠세라 분주했던 오감을 가만히 쉬게 하자. 느리게 걸으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자유를 선물하기에 부족함 없는 가을이다.

김은미 명예기자 (jami34@hanmail.net)  
사인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수인선 협궤철로변  
가을을 머금은  
금빛 황화코스모스**

안산시 도심속 유희지인 수인선 협궤철로변, 와~스타디움에서 단원구청 맞은편까지 12,300㎡(3,700평)에 계절꽃을 파종하여 철따라 꽃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추억의 수인선 협궤철로변 꽃 단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계절꽃이 철따라 피는데 금번엔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가 만발하여 멋진 노을 꽃바다를 연출하고 있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힐링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성한 잡초로 뒤덮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유희지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한편 계절꽃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단원구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계절별 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숲의 도시, 꽃의 도시'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생태관광 전문가들이 모인 '생태관광의 꿈 in 안산'

### 대부도에서 전국단위 심포지엄 개최해

리 소금으로 유명한 동주염전까지 생태관광해설사와 함께 대부도를 가까이에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멀게는 제주도에서 가까이 대부도 지역 주민까지 생태관광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한 이번 심포지엄은 각 지역의 성과와 노력을 한데 모으기에 충분했다.

생태관광을 꿈꾸는 전국의 유쾌한 사람들이 만나는 유쾌한 장에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한 참가자 전원은 매년 희망하는 지역에서 가을에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생태관광은 지역주민이 관광 수익을 만들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선순환구조의 관광산업"이라며 "안산시 대부도에서 생태관광의 꿈이 실현되어 대부도가 진정한 보물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꿈을 혼자서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모두 함께 나누어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안산에서 꿈 생태관광의 꿈이 이제 안산의 꿈을 넘어 모두의 꿈이 되었다.

김은미 명예기자(jami34@hanmail.net)

안산은 지금 풍미작렬(風味炸裂)

# “30년 어머니의 손맛과 과학이 담긴 참맛” **조순금 닭도리탕**



늦은 오후 본오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조순금 닭도리탕’을 찾았다. ‘조순금 여사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았다’는 문구의 표지판과 함께 ‘영유아를 동반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시선을 잡는다. 작년 9월 TV에도 소개된 맛집. 이 집 맛의 비밀은 마늘 숙성 닭고기다. 매일 아침 들어오는 국내산 생닭을 마늘과 후추만 넣고 숙성시켜 사용한다. 마늘 숙성 닭도리탕은 어머니 조순금 여사의 손맛과 김현중 사장(47세)의 연구가 담긴 결과물이다.

김 사장이 어머니와 함께 2년여의 연구 끝에 30년 어머니의 손맛을 수치화시켜 ‘조순금 닭도리탕’을 운영한 지 6년째다. “마늘은 닭 노린내를 제거하고 닭요리를 풍미 있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더불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닭가슴살도 펍퍽하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마늘은 향이 강해 예전에는 양념으로만 써 왔으나 마늘과 닭은 ‘최고의 콤비’로 여름 보양식으로는 최고라고 한다. “위생관리와 최상품의 식재료,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TV에 소개된 후에는 계단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

이 재료가 떨어져 그냥 돌아가기도 했어요.”라며 어깨를 으쓱한다. 김 사장은 ‘외식사업은 문화가 가미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식당 주인의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특화마케팅으로 ‘노 키즈 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는 예를 들었다. ‘조순금 닭도리탕’은 메인 메뉴와 관계 없는 반찬을 줄여 3찬을 기본으로 한다. 배추김치는 기본 반찬으로, 닭볶음탕에 청량감을 주는 양파초절임, 오이김치 만을 제공하여 재활용의 유효과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있다. 또한 맛과 더불어 청결 또한 기본으로 삼는다. 손님 응대 시 깨끗이 세탁해 반듯하게 개어놓은 앞치마와 물수건을 손님 수에 맞춰

내놓는다. 일하던 직원이 가족을 데리고 손님으로 와서 먹을 정도로 깨끗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사장은 “2년 연구해서 10년 팔 메뉴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연구를 합니다. 과정을 늘리지 않고 정공법으로 승부하겠습니다.”며 본질을 강조했다. 어머니의 손맛과 과학이 담긴 참맛을 즐기려는 고객과 사장님의 철학이 맞아 떨어지며 마니아들이 즐겁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맛집으로 오래 기억되기 바란다.

• 문의 : 조순금 닭도리탕 (☎ 031-501-1007)  
 • 주소 : 상록구 본삼로 39 (본오3동 873-11)  
 신선영 명예기자(woghk@hanmail.net)

## 종이고지서는 이제 그만~ 수도요금, 전자고지(이메일)로 확인하세요



안산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수도요금 사이버창구(waterpay.iansan.net)를 통해 전자고지(이메일)신청 메뉴를 개설 운영한다. 전자고지 신청시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자동납부 대상의 경우 3개월간 종이고지와 병행하여 고지되고 이후 전자고지로 전환된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시 월만원 한도로 1%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연체걱정 없이 편리하게 자동납부 신청·해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사이버 창구를 통해 수도요금 조회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 변경 및 사용자가 이사당일까지의 사용요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이사정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031-481-3678)

##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천하는

# 과일·채소



### ○ 배의 효능

- **갈증 해소 효과** : 배의 약9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은 과일입니다.
- **고혈압 예방 효과** : 칼륨 흡수를 촉진하여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변비 예방 효과** : 수분부족으로 변비가 생겼을 때 배를 부드럽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여 줍니다.

### ○ 맛있는 배 고르는 방법

- 크고 묵직하며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도는 배가 맛있는 배입니다.
- 옆으로 볼록한 모양의 배가 맛이 좋습니다.

### ○ 맛있는 배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

- 겨울철에 배를 오랜 시간 그냥 보관하면 무처럼 바람이 들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를 하나씩 신문으로 감싸준 후 하나씩 봉지에 넣어 바람이 통하지 않게 해 냉장 보관 해주시면 오랫동안 맛있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 ○ 배를 더 유익하게 먹는 방법

- 불고기를 만들 때 배를 갈아 넣으면 배에 있는 소화효소 덕분에 고기가 연해집니다.
- 배와 두유를 같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 배의 아랫부분이 더 달며, 단맛은 온도가 내려가면 떨어지므로 너무 차게 해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제29회 별망성예술제

## 안산시민에게 문화향기 전해



단원구 선부동 주민 이모씨(38세)는 가을로 접어들어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축제·행사로 요즘 주말이 아주 즐겁다.

지난 9월 13일 일요일에는 부인과 함께 다섯 살 배기 딸아이 손을 잡고 제29회 별망성 예술제가 열리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찾았다. 부쩍 멋 내기에 관심을 쏟는 아이는 체험행사로 마련된 네일아트 부스에서 손톱에 노란 매니큐어를 했다. “예술제 행사장에서 네일아트? 어울리나?” 이런 우문을 떠올린 아빠에게 아이는 노랑계 칠해진 양증맞은 손톱을 짝 펴 보이며 “아빠! 예쁘지?”하며 묻는다.

연극배우들과의 기념촬영을 위해 소품으로 마련된 고려시대 의상도 적극적으로 입는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바닷가 최일선 보루에서 외적의 침입을 막은 별망성의 수군도 되어보고, 물레를 돌리는 도공의 손길에서 빛어지는 도예 체험도 했다.

별망성예술제는 안산이 반농반어의 서해안 작은 마을에서 1986년 반월·시화 공업 단지로 대표되는 산업 도시로 승격되면서 그 이듬해인 1987년 처음 열리기 시작했다.

해마다 9,10월 가을이 되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초지동 별망성지, 화랑유원지, 올림픽 기념관 등지에서 열리면서 안산을 대표하는 예술제로 발전했다. 반월공단 초입의 열병합발전소 맞은편에 위치한 별망성지

는 해안으로 침입하는 몽고군과 왜구를 막기 위해 쌓았던 해안산성이다. 별망성에 깃든 선조들의 호국정신이 예술로 발현되어 시민 화합과 향토애를 고취시키고 있다.

올해 29회를 맞은 이번 예술제에서 김용권 안산예총회장은 “별망성은 역사의 불휘(뿌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산하를 면면히 지켜온 선조들의 낮이 깃든 곳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터전”이라며 “별망포구에서 일어나는 민초들의 가족사랑을 그린 뮤지컬 불휘가 안산시민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게 해 정주의식을 높이고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예술제 둘째 날에는 ‘우리가라과 힙합의 만남’이란 주제로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와 청소년 뮤지컬 페어, 국악한마당 공연이 이어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줬다. 또한 미술·사진작가·문인 협회에서 준비한 회원작품전이 함께 열려 예술제의 면모를 보여줬다.

별망성예술제는 안산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공들여 기획하고 준비해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해지는 느낌이다. 30회가 되는 내년에는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가까운 수원·인천·부천·광명 외에도 서울시민들도 찾아와 관람하길 기대해본다.

백미란 명예기자 (why0218@naver.com)

# 안산문화재단이 추천하는 10월 공연



ASAC ‘아식’은 AnSan Arts Center 이니셜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기획프로그램 브랜드입니다



### <연극> 태풍기담(颱風奇譚)

- 공연일정 : 10월 16일(금) - 10월 17일(토)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작 : 성기웅(원작·셰익스피어 '템페스트')
- 연출 : 타다 준노스케
- 출연 : 정동환, 박상중, 전수지, 사야 마이즈미, 오다 유타카, 나가이 히데키 등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 관람료 : 전석 30,000원 / 청소년 12,000원  
키움티켓 6,000원
- 공연내용 :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광복 70주년 기념을 기념하여 양국간의 역사인식의 재조명과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한·일 공동 연극을 제작한다. 셰익스피어의 원작 '템페스트'를 기반으로 1920년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꾸며질 예정이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두나라의 언어로 각색한다.



### <연극> B성년 페스티벌

- 공연일정 : 전체일정 10월 19일 - 11월 22일 평일 8시, 주말 3시
- \*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 10.19(월) - 25(일)
- \* 쉬는시간 / 10.31(토) - 11.1(일), 11.4(수) - 8(일)
- \* 3분 47초 / 11.14(토) - 15(일), 11.18(수) - 22(일)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 관람료 : 전석 20,000원 / 청소년 12,000원  
키움티켓 6,000원
- 공연내용 : 연극인들이 만들고, 안산에서 초연되는 청소년 연극축제.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쉬는시간, 3분 47초 총 세 개의 연극을 통해 그들의 세상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감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 <무용> 몸짓 페스티벌

- 공연일정 : 전체일정 10월 23일 - 11월 8일
- \* 몸짓초이스 푸가 / 10.23(금) 8시, 10.24(토) 7시 (해돋이극장)
- \* 몸짓콘서트 / 10.30(금) 8시, 10.31(토) 3시 (달맞이극장)
- \* 몸짓게스트 국립현대무용단 '춤이 말하다' / 11.3(화) 8시 (달맞이극장)
- \* 몸짓스페셜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바디콘서트' / 11.7(토) 3시 (달맞이극장)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 관람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청소년 40% 할인  
키움티켓 R석 12,000원, S석 6,000원
- 공연내용 : 2014년에 큰 성원을 얻었던 몸짓 콘서트가 올해도 안산문화재단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몸짓초이스, 몸짓콘서트, 몸짓게스트, 몸짓스페셜 4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창조적인 안무자 정영두,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지영,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엄재용, 최수진, 김설진,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등 무용계를 주도하는 무용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 안산시민 한데 모여 행복한 추억 만들기

## 10월 9일, 제30회 안산시민의 날 기념 '행복드림 체육대회' 열린다



'제30회 안산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체육대회가 오는 10월 9일 초지동 신안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안산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로 30회를 맞는 '안산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안산시민 모두가 한데 모여 행복한 시간을 갖길 기대하며 마련됐다.

1,2,3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민의 날 기념식이 1부에서 열리고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결속을 다지는 체육행사가 2부에 이어진다. 시민의 예능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장기자랑시간이 3부에 마련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알차고 흥겨운 일정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1부 기념식에서는 안산시민들로 이뤄진 태권도시범단의 절도 넘치는 태권무 시범공연과 행사의 격을 높여줄 화려하고 웅장한 군악대 시열공연이 식전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또 안산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25개 동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마련된다.

안산시민의 단합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명랑운동회는 2부에서 열린다. 가까운 이웃 동별로 팀을 묶어 소통·나눔·행복·상상 4개 팀이 팀별 대항을 펼치게 된다. 손과 손으로 전하는 대형 풍선 '지구를 옮겨라' 게임과 팀원들의 머리, 발 아래로 지나가는 긴 줄을 넘고 피하는 모습이 일렁이는 파도와도 같아 붙여진 일명 '인간파도

타기'경기, 체육대회에서 빠질 수 없는 줄다리기와 이어달리기 등 가을운동회에서 온 동네사람들이 함께 즐기던 시절을 떠올려줄 다양한 경기가 펼쳐진다. 점심시간 사이사이에는 어르신과 어린이를 위한 투호놀이와 훌라후프 돌리기, 짹짹이를 이용한 벨크로 야구 게임이 진행되고 동별 경기로는 남녀 10명이 줄을 넘는 단체 줄넘기가 진행된다.

3부는 안산시민의 노래실력과 넘치는 예능감각을 보여줄 장기자랑대회로 채워진다. 입담과 재담의 KBS 개그맨 김재욱이 사회를 맡았다. 방송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서 '댄수다. 나쁜 남자. 닥치고' 등, 재기 넘치는 솜씨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

는 김재욱은 행사진행과 무대공연 둘 다 가능한 엔터테이너로서 안산시민 장기자랑대회에 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안산의 각 동 주민센터는 체육대회에 참가할 마을 주민들의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25개동에서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 (☎ 031-481-2146)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제9회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The 9th Evergreen Multiculture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2015.10.08(THU)~11(SUN)**

안산문화광장특설무대 · CGV안산 · 문화예술의 전당

**특별영진 라인보우 · 허공 · 손진영 · 진비유 외 다수**

● 개막식 2015.10.9.(금) 18:30 ● 폐막식 2015.10.11.(일) 19:00

주최 :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 주관 :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안산지회(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경기도 | 경기도의회 | 안산시 | 안산시의회 | 경기문화재단 | 경기영상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영화감독협회 | 안산문화재단 | 한국영화배우협회 | 플랜앤소극인운동연합 | 사)최용신기념사업회

## 2015년 제9회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개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50여 편의 영화 무료 상영

계몽 운동가이자 교육가인 최용신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2015 제9회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안산문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분단 70주년, 최용신 선생 순국 80주년을 맞이하여 광복 사진전 및 6.25 한국전쟁 사진 전시회가 문화광장에서 4일간 운영되며, 축제 이튿날인 9일에는 행사의 시작을 공식으로 알리는 레드카펫 행사, 개막 축하공연, 독립운동 재현, 태극기 퍼레이드, 시민 태극기 그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영화제 개막작 '연평해전' 출연진과 감독이 참석하여 열리는 팬 사인회는 감독과 배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한, 영화제에 응모한 200여 편의 단편영화 및 다큐, 애니 영화 중, 애니메이션, 다큐

멘터리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며, 대상은 문화체육부 장관상이 주어지고 최우수작품상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장 상이 주어지며, 우수상은 안산시장, 안산시의장 상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경인방송(OBS) '꿈꾸는 U' 등에 방영될 예정이다.

수상작품과 국내·외 우수 초청작품 등 총 50여 편의 영화는 영화제 기간 동안 CGV안산점, 안산문화광장,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무료 상영한다. 개막식 축하공연에서는 걸그룹 레인보우를 비롯하여 허공, 손진영, 김비유 등 인기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 문의 :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사무국 (☎ 031-402-6329)



## 멸종위기종의 안식처, '안산갯대습지공원'



### 환경교육과 생태체험 동시에 할 수 있어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만큼 인기 있는 장소인 안산갯대습지공원은 끝없이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양파 같은 공간이다. 2002년에 개장할 당시에는 시화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갈대를 이용한 자연정화처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습지로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학습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많은 철새들과 식물, 양서류 등을 이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얻을 수 있다.

날씨가 선선해진 가을이 오면 더 많은 관람객들이 갯대습지를 즐긴다. 공원으로 바로 오는 대중교통이 없어 조금 불편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나들이 나온 관람객의 모습도 최근 부쩍 늘었다. 특히 페달로(안산시 공공자전거)를 타고 온 가족과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최근 갯대습지 옆에 있는 수변공원에 페달로 정류장이 설치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공원에 들어와 처음 보게 되는 건물은 안

산갯대습지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환경생태관이다. 1층은 갯대습지가 조성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역사관과 이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들의 모습을 전시해 놓은 자연생태실 및 습지생태실로 구성되어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망원경으로 습지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다.

생태연못 쪽으로 가보니 오리 한 쌍이 천연덕스럽게 눈앞에 지나가고 있

었다. 근처에 있던 아이들은 자연에 사는 오리를 가까이에서 보는 게 신기한지 계속 그 뒤를 쫓았다. 갯대습지 주변을 여유롭게 돌아다니다 보면 마치 동물원처럼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동굴구난시설에 있는 염소를 관찰하며 잡초를 뜯어 먹이를 주는 아이들, 관찰로를 따라 걸으며 연꽃과 갈대 속에 숨어있던 물고기 떼를 지켜보는 관람객들을 볼 수 있다. 조류관찰대에서 어도(물고기 길)를 조용히 지켜보면 민물 가마우지와 중대백로, 그 밖의 작은 철새들을 직접 두 눈으

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곳에선 갈대 서식처에 번식하는 조류 6종인 논병아리, 뿔논병아리, 물닭, 쇠물닭, 개개비, 텃밭해오라기를 모두 관찰할 수 있다. 또, 갯대습지는 원앙, 황조롱이,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 11종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조류 이외에도 멸종위기종 2급 양서류인 맹꽂이와 금개구리,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이 그만큼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생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공간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갯대습지를 찾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장이다. 이 교육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홍보하는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주하는 해설가의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거나 선풍기가 돌아가는 체험기구, 운동을 하면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져 LED조명이 작동되는 자가발전 운동기구 등이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에서 안내자로 활동하는 김자영 씨는 "우리나라 전력 소비율이 세계최고 수준인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인다거나 소고기 섭취량을 줄이는

작은 일만 실천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당장 지구를 위해 나무를 심을 순 없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 몇 백 그루 나무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갯대습지공원에서는 탐방객들을 위한 생태해설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야생화 탐방로를 따라 걷는 A코스는 갈대와 연꽃, 부들 등 수생식물과 거미 잡자리 같은 곤충들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약 40분이 소요된다. B코스는 야생화길 오른쪽 관찰데크를 따라서 인공섬과 조류관찰대, 어도에서 다양한 새를 관찰할 수 있으며, 약 20분 소요된다. 견학 신청은 갯대습지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는데, 10월에는 학교와 유치원에서 단체예약이 연이로 정도로 인기가 많다.

갯대습지공원은 서식 생물 보호를 위해 다른 공원과 달리 일찍 문을 닫는다. 11월부터 2월까지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월부터 10월까지의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 안산갯대습지공원 홈페이지 <http://wetland.iansan.net>
- 추석휴무안내 : 9월 27일 ~ 28일 휴장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 선사시대 유물이 가득한 '신길역사유적공원' 이야기



선사시대 집터와 유물이 발견돼 공사는 중단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발굴조사를 했다. 이후 2010년 연구보존을 위해 역사유적공원으로 만들어져 20기의 주거지를 복원했다.

신길동 선사유적지는 신석기 시대 한반도 중서부 지방의 대규모 주거지군이다. 23기의 집터와 토기 조각, 갈돌, 갈판, 석기류 486종 590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이는 고고학적으로도 이례적인 발굴이며, 안산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되고 여러 시대에 나타난 유적지이다. 주변 지역의 신석기 유적들과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신길네트워크 회원들은 전문가와 함께 완성한 역사유적공원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농경조형물, 종합안내판, 인근 선사유적안내판을 조성했다. 현재는 수혈주거지, 조형파고라, 선사조형가벽, 빗살무늬조망데크 등이 설치되어 있고, 공원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며 마을의 선사유적

을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험학습안내자 석기마녀 2기 유남례 회장은 "신길역사공원의 발굴규모는 사적 제267호에 지정된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주거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암사동에 가지 않고도 훌륭한 역사현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입식이 아닌 다양한 활동으로 역사를 이해하도록 합니다."라고 했다.

공룡의 뼈대를 닮은 조형파고라 안에서 만든 활과 화살을 들고 사냥터로 떠나는 아이들의 볼은 기대감으로 발갛게 달아올랐다. 노루, 토끼, 매 등 동물 이름이 적힌 풍선에 활을 쏘아 풍선 안의 아이팀을 획득하는 사냥 대회는 아이들에게 그리 녹록치 않아 보였다. 풍선을 조준하는 것도 처음엔 쉽지 않았다. 몇 번의 연습 끝에 풍선을 맞히긴 했으나 야속하게도 풍선은 잘 터지지 않았다. 그렇게 반복을 통해 아이들은 방법을 터득해간다.

최승호 학생(신길초3)은 "지난번에는 '신

석기의 하루'를 체험했어요. 낚시, 열매 따기, 도토리 줍기, 상추심기를 했는데, 오늘은 활을 만들고 사냥대회를 하니 너무 재미있어요."라고 말했다.

신길셋별작은도서관 윤명숙 관장은 "주민들이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하나하나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이 문화자원을 지키겠다는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처음"이라며, "이 지역을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에 요청,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되어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안산신길선사유적공원'이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찾는 유적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토요일 오전 내내 놀이이자 훈련을 하며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은 신석기 시대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구름 걷힌 공원이 아이들의 목소리처럼 청명하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9월 12일, 신길역사유적공원에서 '신길동 선사시대 사냥대회' 프로그램이 열렸다. 비가 내려 공원 잔디는 축축했고, 하늘은 흐렸지만, 사냥대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체험안내자들의 질문에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시간의 길을 지나 현재에서 과거로 걸음을 옮겼다.

종합안내판에는 신길역사공원의 개요, 출토유물, 유적지의 역사적 의미 등이 소개되어 있다. 2002년 5월, 신길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개발을 하던 중

“안산시의 도시숲은 안산시민에게 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를, 심리적 치유와 보다 나은 삶을 선물합니다.”

<p><b>자연공존의 숲</b></p> <p>시민들이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생명의 숲</p>	<p><b>녹색가로의 숲</b></p> <p>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 자연과 도심을 연결하는 가로녹지 숲</p>	<p><b>해안휴양의 숲</b></p> <p>섬의 다양한 생물들이 가득한 갯벌 및 해안선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해안생태 숲</p>	<p><b>치유의 숲</b></p> <p>시민의 스트레스저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휴양의 숲</p>	<p><b>공동체의 숲</b></p> <p>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커뮤니티 도시숲</p>
--	---	--	--	---

# 반갑다! 모바일세상!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경기모바일과학고(교장 조도순, 상록구 남산평길 35(팔곡일동 253))는 '생각은 자유롭게, 행동은 책임 있게, 꿈은 세계를 향해'라는 교훈 아래 IT분야 특성화고로 발돋움하고 있다. 창의성과 책임감을 지닌 개성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모바일비즈니스과, 모바일컨텐츠과, 모바일그래픽디자인과로 세 개의 학과가 있으며, 총 30학급 약 900여 명의 학생에게 모바일산업 정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자격증의 취득을 돕는 방과후 학교 수업을 비롯하여 각종 인재반 수업(금융반, 전산회계반, 회계원리반, 모바일프로그래머반, 모바일디자인반, 국사반, 웹앱반, 모바일GUI반, 모바일로봇인재반 등)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문교과동아리, 야간자율학습, 진로상담, 자기소개서·이력서 지도, 인·적성 지도, 면접 지도, 대·내외 공모전 대회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 모바일비즈니스과

모바일 통신 환경의 변화는 기업 경영 환경을 e-비즈니스 환경에서 m-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m-비즈니스 환경은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모바일 통신환경과 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m-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진로분야는 모바일 비즈니스 창업, 전자상거래관리사, 증권투자상담사, 마케팅 기획자, 경영컨설턴트, 광고 기획자, 대기업, 공무원 등이다.

### 모바일컨텐츠과

모바일 기기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컴퓨터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프로그래밍 역량을 키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 모바일 게임 개발, 하이브리드 웹 구축,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등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모

바일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양성한다. 진로분야는 모바일 프로그래머, 모바일 게임 기획자, 모바일 게임 테스터, 웹 개발자, 모바일 3D 게임 개발자, 모바일 통신 전문가, 모바일 콘텐츠 제작자, 무선 인터넷용 웹 개발자, 모바일 S/W 개발자, 대기업, 공무원 등이다.

### 모바일그래픽디자인과

모바일그래픽디자인 분야의 UI를 실현하기 위한 모바일그래픽디자이너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컴퓨터그래픽, 시각디자인실무, 모바일디자인일반, 모바일그래픽디자인 등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모바일그래픽디자인 작업이 가능하며 GUI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진로분야는 GUI디자이너, 모바일게임캐릭터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애니메이션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디자인 기획자, 광고 디자이너, 컬러리스트, 대기업, 공무원 등이다.

학교 관계자는 "저희 학교를 믿고 보내주시면 3년 동안 놀랄정도로 잘 키워서 국내 공공기관이나 좋은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취업은 물론 진학에도 신경쓰고 있으니 좋은 인재가 와주길 바란다."며 "경기모바일과학고는 공립 특성화고등학교로 교육청의 모든 지원을 학생들의 교육 활동 운영비로 사용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부담없이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공립특성화고등학교 특징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모바일과학고는 2014년 4월 기준 취업률 50.53%로 경기도 상업계 특성화고 118개교중 4위(전체 계열 9위)를 달성했다. 더군다나 공립특성화고에서는 전체 계열에서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 문의 :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 031-400-6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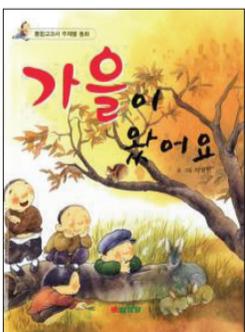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 '책 읽는 안산' 9월 추천도서

아동

**가을이 왔어요**  
박경원 / 삼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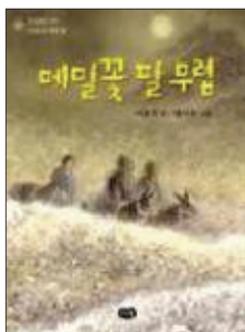
「가을이 왔어요」는 통합교과 주제 가운데 '가을'을 바탕으로 구성한 동화다.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가을의 환경적 특징이 녹아들어 있어,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더불어 숲 속에 사는 새들을 알려 줌으로써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을철에 하는 놀이'로 함께

어울려 노는 법을 알려 줌으로써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유도한다.

청소년

**메밀꽃 필무렵**  
이효석 / 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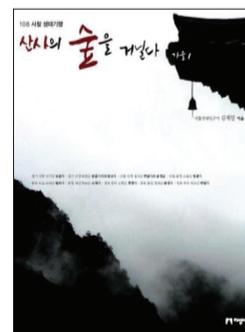
1930년대 세련된 언어, 풍부한 어휘, 시적인 분위기의 문체로 독자적인 소설 세계를 창조한 작가 이효석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라 불린다.

1930년대 초기의 진보주의적 문학에서 점차 탈이념적인 순수문학으로 이행하던 당시 문단 전체의 동향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밀꽃 필 무렵」은 장물뱅이 허 생원의 삶과 애환을 매우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문체로 잘 표현했다.

성인

**산사의 숲을 거닐다: 가을**  
김재일 / 지성사



2002년 봄부터 2008년 가을까지, 산사의 숲을 다니며 찾아낸 아름다운 곳을 소개한다. 북으로는 강원도 고성 금강산의 건봉사부터 해남 땅끝의 미황사와 바다 건너 한라산 관음사까지 한 철도 거르지 않고 전국의 주요 108개의 사찰을 찾아다녔다. 이 책은 경치 좋은 사찰을 찾아 단풍놀이를 떠나는 사람들의 길라잡이용 도서라기보다는 자연을 생각하고 산사의 숲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 031-481-3868)

우리 지역의 동아리

## 올해로 9회째 전시회 여는 수채화 동아리 '미담회'

미담은 아름다운 이야기란 뜻이다. 그런 큰 뜻도 있지만 수채화 동아리 '미담'은 그림을 처음 시작해서 배워가는 사람들이 주변 풍경을 소박하게 담아내자는 뜻으로,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동아리 이름이다.

홈플러스 수강을 통해 인연을 맺은 데서부터 미담회 모임은 시작된다. 계속 그림을 그려오면서 시간이 흐르고 취미수준을 넘어선 회원들에게 발표의 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미담회 정기전이 올해로 9회째를 맞아 지난 9월 1일부터 6일까지 단원미술관 제2관에서 열렸다. 미담회는 그림 경향이나 자체의 테마를 공유하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수채화와 유화를 주로 다루는 서양화 중에서도 구상화 위주의 미술동아리다.

구상화는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있는, 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형상이 남아 있는 작업을 말한다. 있는 그대로 풍경이나 대상을 최대한 가깝게 재현해내는, 자기가 처음 본 대상을 머릿속에 받아들인 감정 상태에서 색상이나 형태가 조금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변형되기도 한다.

미담회 회원들은 미담전을 거쳐 전문적인 작가활동을 하거나 전문적인 공부를 위해 대학에 진학한 회원도 있다. 현재 미담회 회원은 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테마를



정해 풍경 스케치 작업을 하거나 풍경 사진 촬영을 통해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기도 한다. 1년동안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면서 김영구 화가로부터 실력을 사사받기도 한다. 미담회에서 열리는 정기전 주제는 '길 위의 풍경'이다. 길 위의 풍경은 거창한 이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을 여행하며 얻는 소박함을 담고자 하는 뜻으로 붙여진 주제다. 김영구 작가는 "그림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독특한 분야일 수도 있다. 외국은 일상생활에서 그림 실력이 없어도 시도 그림을 그리는 풍토가 만연하다. 그림

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림을 구경하면 된다. 작가가 전시장에 있는 이유는 관객과 대화하기 위해서다. 어떤 질문도 작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미술을 어려운 분야라고 느끼지 말고 내가 아는 만큼 향유하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 감상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명옥 회장(64세)은 "우연한 기회에 그림을 시작하게 됐다. 전시회를 돌아보다가 작가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이 들어 그림을 하게 돼서 그런지 너무 좋다.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육아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유쾌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모든 일 다 잊고 집중하다보면 마음을 다스려 차분해지는 매력을 느끼고 있다. 함께 전시회도 할 수 있으니 보람되고 너무 좋다."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그림을 시작하고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사물이 달라보인다고, 사물에 애정이 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들을 보게 된다고 회원들은 말한다. 수채물감이 물과 섞여 색이 번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안정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회원들은 입을 모은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 '난, 난 꿈이 있어요' 장애인 극단, '안단테'가 꿈꾸는 세상



장애인 극단 '안단테'가 지난 9월 5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웰컴 투 시민 예술시대'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잔뜩 흐린 날씨였지만 안산문화광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

안산지역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웰컴 투 시민 예술시대'에 참여한 단체들이 각자 부스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느라 분주하다.

임춘희 씨(53세, 사2동)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대사를 잊지 않으려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대사연습이 한창이

다. "23살에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마비가 왔어요. 장애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면서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죠."

34살에 결혼을 해 두 아이를 두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 집에 와도 말도 안하고 본 척도 안했다. '내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단원보건소에서 장애인 극단 단원을 모집한다기에 용기를 내 도전했다. "집에서 연습장

까지 오가는 길이 힘들지만 연습할 때가 가장 힘이 나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볼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하는 임춘희 씨.

드디어 무대에 오를 시간. 휠체어를 탄 임춘희 씨가 무대 중앙으로 나와 반주 없이 노래를 부른다. "난,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하반신 마비 환자들은 복근을 사용할 수 없어 비장애인에 비해 발성이 훨씬 힘들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관객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혼자 부르는 노래는 떨림과 함께 깊은 호소력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는 그들의 의지를 담아 관객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곧 관객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보이지 않는 벽은 그렇게 허물어지고 있었다.

오는 12월 3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무대에도 오를 '안단테'는 안산단원보건소와 상록수 장애인 II센터의 지원으로 지난해 7월 결성되었다. 10여명의 단원들은 지적·지체 등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연극 활동을 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김종숙 연출가는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지만 연습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느꼈다. 장애는 단지 조금 불편한 것일 뿐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단원보건소 1층 재활보건실에서 연극과 발성,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 '안단테'가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대사 역할로 분주할 날을 기대해본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34@hanmail.net)



# “어른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선두에 서다



지난해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7년 개원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하 안산노인병원)은 그동안 화재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해오다 지난 8월 초 본관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을 마쳤다. 또한 반복적인 화재예방 훈련과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배려하는 병원, 봉사하는 병원, 연구하는 병원’

안산노인병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이다.

본관(지하 1층, 지상 5층)과 신관(지상 3층)에 47병실, 238병상을 두고 운영하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3년 연속 최우수 1등급 병원으로 인정받았고, 2013년에는 요양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했다.

환자와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배려하는 병원, 지역

사회에 네트워크를 연계한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하는 병원, 노인의료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연구하는 병원을 추구한다.

### 전국 유일의 도시 안 생활근린형 노인전문병원

석승한 원장은 “급격한 노령화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시설이 급증했으나 시설 대부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환자가 사회와 단절된다. 하지만 보건소, 구청 등 행정타운과 함께하는 안산노인병원은 도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운영한다. 이 모든 진료는 어르신뿐 아니라 일반인, 청소년, 소아도 가능하다.

### 환자 중심의 의료지원체계와 간병서비스

안산노인병원에는 평균 200명이 입원을 한다. 환자 대부분은 60세 이상 노인이지만 노인성질환(조기치매, 뇌졸중 등)을 가진 환자도 입원이 가능하다. 1년 이상 장기 입원 환자가 대부분이며, 개원 이래 현재까지 입원한 환자도 있다.

이계훈 공공의료팀장은 “입원환자 수에 비해 병실 등 공간이 넓어 쾌적하다.”며 “타 병원이 보통 7,8:1의 간병형태를 이루는 데 반해 우리 병원은 5:1로 안전망을 촘촘히 짜 놓았다.”며 “요양보호사 한 명이 다섯 명을 돌보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 의료와 요양이 함께 이뤄지는 복합시설의 대표 주자

안산시는 노인복지의 선두 주자다. 시는 노인병원과 요양원 시설을 마련하고,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세워 간병비로 지원을 해 생활보호대상자 등 의료취약 계층을 돕는다. 안산노인병원은 ‘효 나눔 의료·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실직, 휴·폐업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성질환자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

석 원장은 “앞으로 노인시설은 의료와 요양이 한 번에 해결되는 복합시설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공노인전문병원의 대표주자로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문의 :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 031-8040-5114

신선영 명예기자 (woghk@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 안산시 ‘희망복지마을’ 만들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 마련

안산시는 최근 단원구 와동 모자세대 사망사건 발생에 따른 ‘복지그늘해소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단전·단가스·단수 등 장기체납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 체계 구축, 복지통장제 추진,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를 통한 상시 발굴 시스템 구축, 복지사각지대 없는 돌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다.

### ▲ 체납가구 정기적인 전수조사 체계 구축

관련기관에 단전·단가스·단수 등 장기체납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위기가구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 ▲ 복지통장제 추진

통장의 임무에 지역주민 가구를 방문하여 위기가구 발굴 후 동 주민센터로 연계하는 복지업무를 추가로 부여한다.

### ▲ 신고의무자 신고활성화를 통한 상시 발굴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장, 경찰공무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신고의무자의 신고활성화를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제공기관 간 공동운영지침 사용으로 상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 ▲ 복지사각지대 없는 돌 복지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안산형 복지마을 돌 복지협의체를 구축하고 현재 4개동(사1동, 부곡동, 원곡1동, 선부1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시범동 복지협의체 출범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자원 발굴·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은 “촘촘한 안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희망복지마을 안산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 뉴스 미란다 원칙

브라보안산에 게재된 내용중  
문의사항, 반론, 정정 요청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부서 및  
안산시청 공보관실  
(031-481-204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우장

한 찬 수(본오3동)

만해 한용운

충청 홍성고을에서 태어나신지 136년  
심우장에서 떠나신지 7년

님이 가슴에 품으셨던 조국독립 한해를 남기고서  
서울 성북동에서 외로히 가시었네

님이  
생전 거하시던 안채는 일제가 보기 싫어서  
북편으로 향하였고 90년 노송만이 청청히 서있네

님은  
아니 계시고 평생 품으신 대한독립의 뜻만이  
심우정 온마당에 외로히 남아 있고나

자유는 마음의 생명이라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자유가 없는 생명은 죽은 사람이라 외치심이 울려 퍼지네

님이시여  
대한독립위해 남기신 공이 너무나 크기에 머리숙입니다  
고히 영면하시어 저세상에서도  
이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 위 시는 제1회 학곡문학축전 노인백일장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한찬수 씨(본오동) 수상작입니다.



## 안산시의회 이모저모



기획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문화·해양 관광자원 발굴·개발 연구회

#### 관광자원 개발 위해 '광명동굴' 벤치마킹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문화·해양 관광자원 발굴·개발 연구회'(연구책임의원 홍순목)가 15일 광명동굴을 방문하여 우수 관광자원 접목을 위한 현장활동을 이어갔다.

광명동굴은 1912년부터 1972년까지 광산으로 사용되다 근대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해 문화·예술·관광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조성한 곳으로 의원들은 광명동굴 관계자로부터 시설과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굴을 둘러보면서 관광자원으로 안착한 성공 요소를 찾는 데 주력했다.

###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활동 실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나정숙)는 본오동에 위치한 상록수 119안전센터와 센터 이전 예정 부지(본오동 875번지), 본오동 1177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대 친환경 매트 깔기 사업부지, 사동 1557-1번지 공공용지 매입부지 등 4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택)도 이날 안산문화재단을 찾아 내년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사업계획과 안산문화광장 사업계획 등 재단의 주요 사업

과 일반 현황을 보고받고, 재단과 관련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근)는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 검토를 위해 안산시 공원과 등 관계자들과 군포시 초막골 근린공원 내 인공폭포 조성현장을 방문, 군포시 공원팀장으로부터 시공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위원들 간 조성 방식을 논의했다.

독/자/투/고

## 안산시 건강음악회가 기대돼요 '음악치료와 힐링'



안산시가 상록수보건소와 함께 10월 13일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건강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금년이 벌써 5회째라 한다.

안산시민의 힐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음악회, 듣기만 해도 설렌다. 음악회도

고혈압, 당뇨병 교육센터 주관으로 안산시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같은 단체와 함께 하니 음악적 치료와 건강증진의 효과가 더 클것 같다.

이번 음악회는 안산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안산시립합창단, 10월의 마지막

밤으로 유명한 가수 이용 씨도 오고 팝카펠라팀도 출어해 참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을거라니 기대가 무척 크다.

음악치료에 대한 필자의 경험담이다. 어렵사리 시작한 사업이 잘 안돼 심각한 우울증으로 먼저 병원 신세를 지던 때가 있었다.

그러던 차에 우리 부부는 누군가가 건네준 음악회 티켓을 들고 잠시 앉았다 올 요량으로 공연장을 갔는데 그 공연이 다 끝날 때쯤에서야 우리가 끝까지 앉아 있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공연에 푹 빠져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 부부는 원래 7080세대여서 포크송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날 음악회에서는 그 지역의 포크 가수와 트럼펫 공연, 그리고 수준 높은 성악 공연까지 다양한 선율을 시민들에게 들려 주었다.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의 열렬하고도 우레와 같은 박수는 기본이었다.

예상치 않은 음악공연을 통해 우리 부부는 그동안 힘들었던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하며 위로하게 되었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음악과 치료, 생각해 보면 서로 이질적인 듯 보이는 두 단어의 조합이 주는 묘한 매력이다. 바로 이것이 음악치료라는 암호 노릇도 하는 것 같다.

아침을 깨우는 멜로디, 휴대폰의 알람

이 음악이고, 눈 뜨자마자 쿵 텔레비전의 아침 뉴스도 일종의 음악이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는데 집 앞 골목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동차가 후진을 하며 내는 소리 '띠리리리리 리리리리'는 다름 아닌 엘리제를 위하여이다.(베토벤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음악이 후대에 와서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 아셨을까?)

탈수까지 다 마쳤다는 세탁기가 보내는 신호, 취사가 완료되어 임무수행을 했으니 이제 보온으로 전환하겠다는 전기밥솥의 메시지도 짧은 멜로디도 음악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음악이 듣는 방법과 접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정신적 혼란 같은 것에 지친 시민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점이다.

안산시민 여러분 중 혹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이 있었던 분이 계신다면 10월13일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건강음악회에 꼭 가셔서 힐링할 것을 강추한다.

김만석(단원구 고전로)

Photo in Ansan

# 사진으로 보는 안산

## 화정동 '꽃우물 마을'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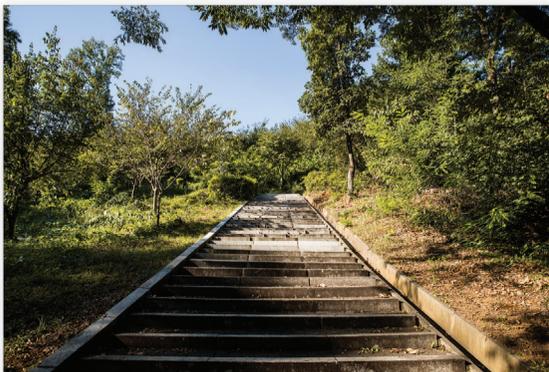
## 안산중앙공원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 꽃우물 마을

• 위치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 한줄 정보 화정동(花井洞)의 한자 뜻을 지닌 '꽃우물 마을'. 예전 이곳에 있던 큰 우물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안산중앙공원

• 위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 한줄 정보 안산시청 뒤 야산을 공원화,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산 정상에 서면 안산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진료안내센터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5. 9. 26 ~ 9. 29 (4일간)
- 보건소 진료일정
- 모집기간
  - 상록수보건소 : 9. 26(토) 9:00~18:00 (☎ 481-5984~5)
  - 단원보건소 : 9. 26(토) 9:00~18:00 (☎ 481-3499)
- 진료 및 약국 안내
  - 주간 : 상록수보건소(☎ 481-5937) / 단원보건소 (☎ 481-3470)
  - 야간 : 안산시청 당직실 (☎ 481-2222)
  - 응급환자 상담 (국번없이 119)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국번없이 119)
  -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1339.or.kr) 및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 문의처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 031-481-5936, 5937)  
안산시 단원보건소 (☎ 031-481-2553, 3470)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5. 6. 1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납부기한 : 2015. 9. 16 ~ 9. 30
- 상담전화 : ○ 상록구 세무2과 (☎ 031-481-5203 ~ 5206)  
○ 단원구 세무2과 (☎ 031-481-6200 ~ 6203)



## 365 행복드림민원실 추석 당일(9월27일) 휴무 안내

- 휴무일 : 2015. 9. 27(일) / 추석 당일 휴무
- 내용 : 통합민원 및 여권 업무 등 일과시간 외 연장업무 휴무  
※ 무인민원발급기는 추석연휴기간 기존대로 운영

- 명절기간 민원실 운영현황**
- 운영일 : 2015. 9. 26(토), 9. 28(월) ~ 9. 29(화)
  - 운영시간 : 9:00~18:00

※ 민원안내를 위한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는 휴무없이 운영.



## 2015년 무료 독감 예방접종 안내

“이제는 우리동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독감접종해요”

- 일 시 : 2015. 10. 1(목) ~ 11. 15(일)
- 장 소 : 안산시 독감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 대 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1급~3급), 기초생활수급권자(만50세~64세)
- 문의전화 : 상록수·단원보건소 ☎ 1666-1234

## 2015년 안산시 노인 인플루엔자 지정 의료기관

상록구 (98개소)	
일 동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명성의원, 서울성모의원, 일동제일의원, 일동튼튼의원, 현대가정의원
이 동	고잔연세내과의원, 백내과의원, 사랑드림내과의원, 서울이비인후과의원, 서천의료재단 한사랑병원, 스마일내과의원, 안산튼튼병원, 이화M&M소아청소년과, 탄탄의원, 하나정형외과의원
사 동	고잔정형외과의원, 베스트힐스요양병원, 서울정형외과의원, 서울중앙의원, 안리속내과의원, 양세의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연세가정의학과소아과의원, 연세우리의원, 열린문외과의원, 하나가정의원, 현제의원 효심요양병원
성 포 동	다솜의원, 명소아과의원, 손이비인후과의원, 스타소아청소년과, 안산무지개연합의원, 연세내과의원, 조병섭내과의원, 최응덕소아과의원,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홍기정이비인후과의원
월 피 동	김상후 이비인후과, 동안산병원, 새안산의원, 안산삼성의원, 참소아과의원, 참정형외과의원, 하나의원, 호원요양병원
부 곡 동	365열린의원, 박승철내과의원, 부곡고려정형외과의원, 아이맘365의원, 연세성모의원, 참사랑의원
건 건 동	반월제일의원, 서울의원, 연세가정의학과, 원소아과의원, 현대외과의원
본 오 1 동	강남수내과의원, 마성호내과의원, 명성요양병원, 본오가정의학과의원, 새안산상록의원, 제일성모의원, 한마음외과의원, 한사랑의원, 한솔가정의학과의원, 해인요양병원
본 오 2 동	21세기의원, 365건강의원, 누가의원, 미즈피아산부인과의원, 본오제일의원, 삼성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신한국의원, 위내과의원
본 오 3 동	김성봉내과의원, 기동병원, 정가정의원, 마음속내과, 서정열이비인후과의원, 서울내과의원, 세화병원, 연세가정의학과의원, 연세조내과의원, 으뜸요양병원, e-서울이비인후과의원, 정정형외과의원, 지성메디컬의원, 탐정형외과의원, 편한내과의원, 한양재활의학과의원, 현대내과의원, 해맑은소아과의원, 희망의원
팔 곡 동	팔곡연세의원
수 암 동	수암강서의원, 수암성가의원

## 단원구 (104개소)

고 잔 1 동	중앙가정의학과의원, 안산21세기병원, 고려가정의원, 최영훈정형외과의원, 고광섭내과의원
고 잔 2 동	김내과의원, 염이비인후과의원, 모아내과의원, 휴웰요양병원, 숙편내과의원, 에스미의원, 명문소아과의원, 이희승내과의원, 에스정형외과의원, 내마음내과의원, 경혜신소아과의원, 흥제의원, 김비노기과의원, 윤이비인후과의원, 우경조병원, 연세의원
호 수 동	호수요양병원, 초지연세이비인후과의원, 고잔명내과의원, 건강미래래향외과의원, 고잔연세소아과의원, 참내과의원, 안산천내과의원, 안산조은요양병원, 젊은신경과의원, 데베스트내과의원, 경희요양병원, 고려메디컬의원, 라이트요양병원, 고잔이비인후과의원, 푸른솔내과의원, 우리들가족의원
선 부 1 동	안산제일노인전문병원, 한도병원, 송기헌소아과의원
선 부 2 동	명성의원, 한사랑외과의원, 한우리의원, 산성의원, 선부고려소아과의원
선 부 3 동	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선부한빛의원, 제일조은내과의원, 동산연합소아과의원, 본이비인후과의원, 김영준내과의원, 우리들내과의원,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 정내과의원, 연세이비인후과의원, 선부연세내과의원, 온누리병원, 김승범가정의학과의원
신 길 동	이지의원, 햇살가득의원, 대한산업보건협회부설 안산성모의원, 연세킴의원
와 동	한사랑내과의원, 삼성드림의원, 안산우리의원, 우리들소아과의원, 한양의원, 서울가정의학과의원, 한길외과의원
원 곡 1 동	연세하나의원
원 곡 2 동	두리연합의원, 이상기이비인후과의원, 이정선내과의원, 정우석정형외과의원, 유소아과의원, 김태준내과의원, 원곡연세소아과의원, 코코이비인후과의원
원 곡 본 동	원곡하늘의원, 원곡바른메디컬의원, 강남의원, 안산내과의원,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성민의원, 장내과의원, 신태식정형외과의원, 안산서해의원
초 지 동	안산제일복지의원, 동의성단원병원, 도담의료생활협동조합 도담요양병원, 안산효양병원, 참조은내과의원, 아너스요양병원, 예플러스이비인후과의원, 맘편한산부인과의원, 서안산노인전문병원, 풍림메디의원, 사랑샘의원, 양은수내과의원, 정이비인후과의원, 고잔우리들소아과의원, 연세박내과의원, 김중진정형외과의원
대 부 동	포도나무메디컬의원

# 2015

## 우리밀 & 아산대부도 해산물 축제

### 2015. 10. 3 10시~17시

###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

**출 연** MC - 개그맨 김재욱  
공연팀 - 송승환의 난타, 김혜연, 이동준, 트로트아이돌 태자, N-Squad(B-Boy)

**체험행사** 대부도 칼국수 시식, 대부도 해산물 (조개구이, 새우구이, 전어구이) 체험, 아빠와 함께 해산물 음식 만들어 보기(해물전, 해물칼국수, 해물수제비), 솜사탕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이색자전거, 자전거로 주스 만들기,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핸드폰튜닝, 네일아트

**이벤트 행사** 푸드파이터, 깜짝경매, 만보기 댄스, 넌센스 퀴즈 등 즐거운 이벤트

주최 : 안산시  
주관 : 대부도 방아머리 상인연합회

## 상록/단원어린이도서관 10월 주말 영화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 〈상록어린이도서관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 휴관 : 10월 3일(토) - 개천절

			
10월 10일(토)	10월 17일(토)	10월 24일(토)	10월 31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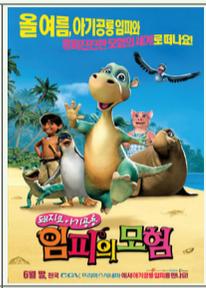
안산시 감골도서관(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상록어린이도서관 지하 어울림방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감골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어린이도서관(☎481-3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 〈단원어린이도서관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 휴관 : 10월 3일(토) - 개천절

			
10월 10일(토)	10월 17일(토)	10월 24일(토)	10월 31일(토)

안산시 관산도서관(단원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단원어린이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어린이도서관(☎481-38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 E A L T H / C O N C E R T

# 제 5회 건강음악회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랑 중심 안산특별시

**출연진** 이 용 / 안산시립합창단  
팜카펠라 원달러

**2015.10.13(화)**  
19:00~21:0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초등학교이상 관람가능

| 주최 | 안산시  
| 주관 |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안산시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 접수 |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416-9088  
상록수보건소 ☎481-5923

## 내 마음의 보석

공모주제

구분	주제 (예시)
희망, 열정의 삶	인간의 기쁨에 취하여 자신과 기쁨을 함께 키워 나가는 이야기
숲	자연을 즐기며 마음의 안식을 찾는 이야기
문화	각국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이야기
따뜻한 이웃	세월호로 힘겨워하는 유족들을 어루만져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등 따뜻한 이웃들의 이야기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	볼거리, 먹거리, 체험 등을 즐기는 도시의 관광 이야기
교육	안산소재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
기타	기타 안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야기

**공모자격**  
누구나 참여 가능(개인 또는 공동출품 가능)

**응모기간**  
2015.4.27~10.23

**응모방식**  
avi, wmv, mpeg로 제출할 경우 형식 제한없음  
해상도 640\*480픽셀 이상, 3분내외 분량으로  
용량은 100MB 이내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신청서, 출품작) kasco013@naver.com  
접수문의 :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TEL : 02)6052-9634 양승미 연구원

**심사**  
예선 : 10.26(월)~11.10(화)  
본선 : 11.11(수)~11.27(금)  
발표 : 2015.12.04(금)

**시상내역**  
대상(1팀) 150만원  
최우수상(2팀) 70만원  
우수상(4팀) 50만원  
인기상(1팀) 10만원

# 2015 안산 UCC 공모전

2015.4.27(월)~10.23(금)까지

자세한 내용은 <http://snsawards.com/ucc/> 참조

**2015년 시정소식지 만족도 설문조사**

기간 : 2015. 9. 7. ~ 9. 30. (24일간)

설문조사하기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시정소식지를 사랑해주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에서는 더 좋은 소식지를 제작하고자 구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세요!  
안산시 홈페이지 (<http://www.iansan.net/>) 접속 ⇒ 우측 배너 클릭
-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안산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지 ⇒ 공지사항에서 설문지를 다운받으시고 작성하신 후 [bravo@iansan.net](mailto:bravo@iansan.net) 으로 보내주세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구독자 중 10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